

“문학작품이 주는 상상력, 문화전문가 토대”



이용우 광주비엔날레 재단 대표이사는 마셜 맥루한의 '미디어의 이해'와 사회학자 마누엘 카스텔이 쓴 '네트워크 사회'를 '내 인생의 책'으로 꼽았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6 광주비엔날레재단 이용우 대표

시인이 되고 싶었던 시골 소년은 대학생이 되어 그 꿈을 이루게 된다. 80년 5월에는 신문사 사회부 기자로 5·18광주민중항쟁 한복판을 뛰어다녔다. 그는 돌연 관심분야를 미술로 확장시킨다. 대학원에서 미술학을 전공한 그는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미술 이론을 가르쳤고, 미술평론가, 문화이론가, 전시기획자로 활동폭을 넓혔다. 광주비엔날레재단 이용우(61) 대표이사 얘기다.

11일 광주비엔날레재단 사무실에서 만난 이 대표는 “지식에 대한 갈증을 책에서 풀면서 자연스럽게 관심 영역이 넓어지게 됐다”고 말했다. 청소년기에는 문학 작품이 선사하는 상상력에 흠뻑

을 보여주는 방법일 뿐이지 비엔날레 자체를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전시를 준비하면서 작가, 시민들과 의견을 주고 받고 사회현상, 다양한 분야의 정책을 접목시키면서 만들어낸 결과물을 가지고 시민들과 소통하는 것이 비엔날레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대를 앞서가는 것입니다.”

예술을 통한 사회참여를 꿈꿨던 그의 생각이 비엔날레에 흐르는 셈이다. 그는 이 같은 생각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내년 20주년을 맞는 비엔날레 때 삶과 죽음, 즉 삶의 본질에 대해 고민해보는 전시와 세미나를 열 계획이다. 단순한 미술 행사로 인식되는 비엔날레의 스펙트럼을 구체적으로 확장시키는 계기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최근까지도 자신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책으로 '테크놀로지의 시인'이라 불리는 마셜 맥루한의 '미디어의 이해'와 사회학자 마누엘 카스텔이 쓴 '네트워크 사회'를 꼽았다. 미디어의 이해는 '미디어는 메시지를 주체로 오늘날 미디어 이해의 길을 제시하면서 정보화 사회를 예측한 시작이고, 네트워크 사회는 서로 다른 문화와 제도에서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강조한 책이다.

‘미디어의 이해’ ‘네트워크 사회’ ‘총, 균, 쇠’ 큰 영향 철학·과학 등 다독하며 깨우친 통섭 비엔날레 접목

빠져들었다. 이후 문학적 토대이자 은사인 박두진 시인의 추천으로 한국문학에 '안개의 강'이 실리면서 시인으로 등단하게 됐다. 당시 읽었던 심훈의 '상록수', 김승옥의 '무진기행' 등과 함께 60~70년대 쏟아졌던 문학작품들은 오늘날 문화전문가 이 대표의 토대가 됐다.

“대학시절에는 문화와 연극에 심취했고, 석·박사 과정을 준비하면서는 미술 전공 서적을 많이 탐독했습니다. 미학, 예술 철학, 사회학 등 서적이 주류를 이뤘죠. 특히나 예술을 통해서 어떻게 사회에 참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때문에 예술 사회학 책들이 많았어요. 최근 15년간 읽은 책은 철학, 과학, 종교 등 전공 이외의 서적이 90%를 차지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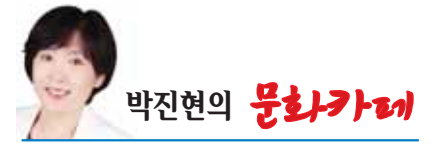
의외의 답변이었다. 하지만 답은 명료했다. 다양한 서적과 학문이 일으키는 삼투압 현상이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는 본인의 철학 때문이다. 인문학과 자연과학의 융합을 비롯해, 흔히들 말하는 '통섭'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또 하나 의외의 답변이 나왔다. 비엔날레는 미술품만을 전시하는 조직이 아니라는 것이다.

“흔히들 사람들은 '비엔날레=미술'로 알고 있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전시는 비엔날레의 결과물

조지 오웰이 쓴 '1984'에 얽힌 재미있는 이야기도 소개했다. 조지 오웰은 1984에서 거대 미디어 권력으로 인해 사람들은 미디어의 노예가 되고 이는 곧 인류의 멸망을 의미한다고 했지만 백남준은 1984년 1월1일 '굿모닝 미스터 오웰'이라는 작품을 통해 “당신의 예고와 달리 우리는 미디어와 함께 살고 있다”고 풍자했다는 것이다. 세계적인 석학 제레드 다이아몬드가 쓴 '총, 균, 쇠'도 그가 인상적으로 읽은 책이다.

이들 책들은 그가 백남준과 미디어, 정보사회에 관심을 갖고, 이를 비엔날레에 융합하는 배경이 됐다. 그는 '비디오예술론', '백남준, 그 치열한 삶과 예술', '백남준' 등의 책을 내기도 했다.

“철학은 문화고, 과학은 문명입니다. 철학이 과학을 통해 검증되면서 문화가 문명이 되는 것이죠. 이는 궁극적으로 종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활자가 있고, 정보사회가 있습니다. 결국 비엔날레를 그림을 걸고, 조각을 보러오는 곳이 아니라 소설이 그려져서 사회라는 틀 안에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채널로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내년에 삶과 죽음, 즉 철학과 과학, 종교에 관한 전시와 세미나를 준비하는 이유이기도 하구요.”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박지현의 문화카타레

지난 2009년 파리지역들은 우울한 크리스마스 보냈다. 프랑스의 문화아이콘인 콩피두센터가 성탄절을 앞두고 총파업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콩피두센터에서 우아하게 연말연시를 보내려고 했던 파리 시민들은 갑작스런 파업에 충격을 받았다. 공장도 아닌 미술관이 파업으로 문을 닫은 예는 거의 없어사다.

콩피두센터가 파업이란 '최후의' 카드를 꺼내든 건 당시 사르코지 정부의 예산삭감 때문이었다. 콩피두센터는 1년 예산(1500억 원·2008년 기준)의 70%를 정부가 지원하고 나머지 30%는 자체 수입으로 운영하는 사실상 국

상업성이 강한 전시들을 기획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4년전의 총파업 덕분(?)인지 현재 콩피두센터는 정부로부터 운영예산의 70%를 지원받고 있다. 매년 전 세계에서 600만 명(하루 방문객 1만8000명)이 찾는 글로벌 명소이지만 늘 재정은 빠듯하기만 하다. 최근 5개 시설(도서관·음향연구소·산업창조센터·영상전시공간·현대 미술관) 가운데 방문객 비중이 가장 높은 현대미술관에 올인하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최근 정부가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을 법인에 위탁운영하는 내용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콩피두센터의 파업에서 배워라

립기관이다. 사르코지 정부는 재정난을 이유로 40%의 인원감축과 예산삭감을 골자로 하는 공공부문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이 따르면 직원(1043명)의 40%를 단계적으로 감원하고 70%의 예산 지원도 점차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사실상 국영으로 운영해온 콩피두센터에 대한 지원을 줄여 궁극적으로 법인화 시키겠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놀라운 건 파리지역들이 콩피두센터의 파업을 지지하고 나선 것이다. 콩피두센터가 잠시 문을 닫는 것은 문화도시의 품격을 떨어뜨리지만 예산삭감으로 인한 '불행'을 겪고 싶지 않아사다. 지원이 줄어들면 입장료가 인상되고 질 낮은 콘텐츠들이 콩피두센터를 채울 것이기 때문이었다. 실제로 콩피두센터는

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법안의 요지는 문화전당의 운영주체를 문화부가 아닌 법인에 맡긴다는 것. 하지만, 이는 전당운영에 필요한 안정적인 예산확보를 담보할 수 없다는 점에서 부실화가 우려된다. 전당의 수지를 맞추기 위해 저예산 콘텐츠를 추가할 경우 그 대가는 고스란히 광주의 몫으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콩피두센터의 파업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눈앞의 이익을 쟁기려다 문화도시 파리의 자긍심을 떨어뜨릴 뻔했던 어려움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시민들의 문화향유권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공공의 가치다. 문화부가 전당의 운영주체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편집국 부국장·문화선임기자)

도립도서관, 내일 김은진 교수 인문강좌

전남도립도서관(관장 최동호)은 20일 오후 7시 도서관 강당에서 '인문강좌'를 연다. 이번 강연에서는 김은진 원광대 교수가 '내가 선택한 밥상이 세상을 바꾼다'는 주제로 강연한다.

김교수는 강의에서 ▲현대 식품소비의 특장으로 수입농산물과 가공식품의 관계 ▲가공식품을 생산하기 시작 한 대기업의 행보 ▲식품위생과 안전

에 대한 문제점 등에 대해 이야기한다.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이사과 환경농업단체연합회 정책위원으로 활동중인 김교수는 생명공학, 특히 유전자 조작 농산물(GMO) 문제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연구, '유전자 조작 밥상을 치우라!' 등을 저술했다. 한편 전남도립도서관은 매주 목요일 인문강좌를 진행하고 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한국사회와 마주서다’

중견 그래픽디자이너 5명 7월14일까지 상륙전시관

오늘날 우리 사회는 많은 문제에 직면해 있다. 세대 갈등, 지역 갈등, 남북분단, 정체성 상실, 환경 오염 등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걸린 문제들로 힘들어하고 있다. 그래픽 디자이너 다

섯 명이 한국 사회가 직면한 문제점을 신랄하게 꼬집는다. 광주시립미술관은 다음달 14일까지 상륙전시관에서 한국 대표 중견디자이너 다섯명을 초청,

그래픽 파이프 '한국사회와 마주서다'전을 연다. 올해 시립미술관이 여는 첫 번째 디자인 전시로 박금준 601비상 대표, 변주석 국민대 디자인 대학원장, 선병일 남서울대 시각정보디자인학과 교수, 이관형 광주대 시각영상디자인학과 교수, 이봉섭 영남대 교수 등이 참여한다. 이들은 현장과 대학에서 근무하며 한국의 그래픽디자인분야를 이끌어온 중견작가들로 시

대적 문제의식을 디자이너 특유의 세련된 시각 언어로 치환한 그래픽 디자인 작품들을 선보인다. 박금준 대표는 올해 광주디자인비엔날레 포스터 등 EIP를 제작하기도 했다. 광주시립미술관은 이번 전시를 오는 9월 열리는 '2013 광주디자인비엔날레'에 맞춰 준비했다. 오는 9월에는 섬유미술전을 열 계획이다. 문의 062-613-5391.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파란만장 굴곡진 주인공들의 공감토크쇼

MC 박미선, 조형기, 현미, 김학래, 송도순

대천인생

매주 금요일 밤 11시

TV 조선